



도심 생활권의 공원 같은 학교 - 인천 산곡여자중학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교사(校舍)는 온통 담쟁이 넝쿨이 나풀거린다.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꽃봉오리들은 화사하고 앳된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쏙 고개를 내밀 것 같은 아름다운 학교가 바로 인천산곡여자중학교다.

이 학교는 붉은 벽돌 건물에 담쟁이로 둘러싸여 있어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꽃과 잎의 변화가 다양한 수목과 화초의 조경이 아름다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봄에는 진달래, 철쭉, 라일락, 살구꽃, 벚꽃, 꽃사과를 비롯해 홍매화, 황매화(죽단화), 명자나무, 모과나무, 사과나무 등 봄꽃이 겨울의 시린 가슴을 환하게 밝혀 주고 학교 교문에서부터 반기는 목련이 향기마저 풍기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한다.

지역 단위의 그린 커뮤니티 조성

산곡여중은 운동장과 몇 그루의 나무만 있는 삭막했던 학교였다. 그러나, 학교종합 조경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다양한

화초와 수목이 울창하고 특히 봄에는 작은 공원으로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여름에는 담쟁이가 교사 건물 전체를 뒤덮어 싱그럽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며, 운동장에는 우거진 신록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학교에 심어진 나무들은 자기를 자랑하듯 특장이나 특이점을 기록한 명찰을 달고 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꾀하고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체육 시설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산곡남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소규모 열린 녹지를 조성하고, 그린파킹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지역 단위의 그린 커뮤니티(green community)를 훌륭하게 조성한 것이다.

특히, 산곡여자중학교는 주변 연립주택의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녹색 학교 만들기 추진하였다. 체험 학습장은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녹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꽃피는 봄에 맞춰 학교를 찾는 지역 주민들은 작지만 아담하게 잘 조성된 체험 학습장과 자연의 즐거움을 실감하며, 자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칭송이 자자하다. 이 학교는 향후 주변의 천주교회 및 부평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체험 학습장, 생태연못 등을 확장하여 지역 단위 친환경 커뮤니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운동장 화단을 이용하여 시화 전시

이 학교의 장승은 원래 운동장의 끝자락에 본관 건물을 마주하여 한 쌍이 서 있었다. 하지만 13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학교만 지켜보다 한쪽이 쓰러져 새로이 한 쌍을 조각하여 2006년도에 학교 입구에 다시 설치하였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색채가 나타나는 장승이 자신들의 등교 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

운동장의 가을은 환상적이다. 담쟁이는 붉게 물들어 단풍이 자신들의 한해 살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어 학생들이 가을의 애상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

기에 축제를 열어 교정에는 한껏 멋있는 시화가 전시된다. 가을 축제는 담쟁이 넝쿨 축제이다. 축제에서 예쁜 운동장은 시화 전시회의 무대가 된다. 학생들의 작품은 교정 여러 곳에 놓이게 되고 학생들은 가을햇살이며무는시화를바라보면서가슴가득꿈을새기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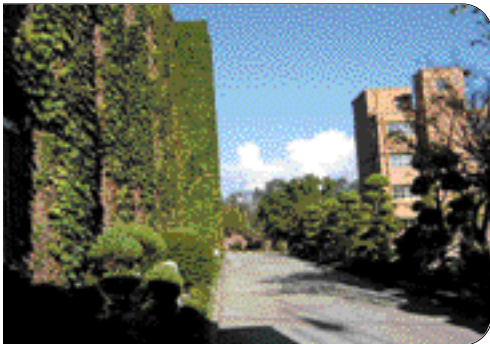
담쟁이 넝쿨이 시들어떨어져 가을바람에 날리고, 모과는노란얼굴을햇살에반짝이고, 학생들이 시화를 보며 삼삼오오 모여다니는모습은정겹기그지없다.

실내 미니 갤러리

학교실내환경또한매우청결하다. 각 층별로색상을달리한도색과테마가있는 갤러리형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일상적인 교육과정에서학생들의색깔을잃어가기쉬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미안적인체험학습효과를높일 수있도록하였다.

복도또한층별로색상을달리도색하여 다양한테마를주고갤러리를구성하였다. 먼저 시작한 작업이 중앙 현관 및 1층의 ‘꽃을주제로하는학생유화작품갤러리’이다. 학생들이캔버스에유화물감으로그림을그려전시를하며찬조작품은학교에서 영구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므로 다양한 분야의그림을계속확보하여전시하도록하였다.

진입로수목과건물외벽담쟁이의조화.



다. 중앙현관의목련갤러리를중심으로1층 중앙 계단에는화가 이정, 장주봉의한국화 대작이 2작품 전시되어 학생들의미적가치를수준높게고양시키고있다.

또한, 실내 화분 기르기를 학생들의 자율적인활동으로실천하고있다. 자신들이 가져온작은화분을창가에놓고미니화단을만들어아름다운실내분위기가조성되고 스스로 꽃을 가꿈으로써 정서 순화 및인성교육에도일조하고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학교

산곡여자중학교는 부평구청이 지원하는 학교내 지역사회커뮤니티지원 사업에 공모해 20억원의 예산을 받아 체육시설을건립하여주변주민들의체육시설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즉, 운동장시설을보완하는방안으로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봉사에도 참여하는 학교가되고자노력하고있다.

나아가 산곡여자중학교는 공공 시설이 완료되면운동장주변공지예나무를심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거점공원으로조성하도록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정에 나무를 심고 연못과산책로를 만들며, 옥상녹화 등을 해 학생들에게는 자연 학습 공간이자 주민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만드는 도시 녹화 방법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수용하려는 것이다. 이는녹지확보가어려운산곡2동의 도심 생활권에 토지 보상 없이 지역 거점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만족도가매우높아질것으로보인다.

학교와 지역 주민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결과 청소는물론환경정비, 물주기등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주관하고, 병충해 방제,



학교입구장승.



꽃테마갤러리.

고사목제거, 비료주기, 노후시설물보수 정비 등 전문적인 관리 지원은 주민들이 맡아하고있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듯 산곡의 딸들은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현재란 언제나 새로운 체험이라는 의미를 상기하고 있다. 미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것이아니라현재삶의연속선상에있다. 세상의모든어려움을해결해주는 약은시간이아니라바로노력일것이다.

산곡여자중학교의 김춘희 교장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의무는 공부하는 자유이고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식이다 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늘 한다고 한다. 어제보다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산곡여자중학교는



인재의요람으로서이사회에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정관영
충북교육청건축사무관(공학박사)